

소설 <페미토피아>에서 추구하는 이상향

이 상 원*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에코토피아의 모색 |
| II. 이상향을 향한 여성 공화국 | 1. 생태계와 문명의 조화 |
| 1.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 | 2. 전통적인 마을, '향촌' |
| 2. 가족 형태와 여성 해방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페미토피아>를 텍스트로 삼아서 소설에 나타난 이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소설이 그린 미래 사회의 구체적 모습과 작가 의식을 살피기 위하여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원용하였다.

작자는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결합된 에코페미니즘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문명 국가로서 여성 이상국을 설정했지만,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가모장 제도를 채택한 사회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억압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이상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비전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설에서는 각기 가부장제와 가모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사회를 대비적으로 제시하였다. 가부장 제도가 존속하면서도 남녀의 위계가 성립되지 않아 억압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적 마을 ‘향촌’을 대비적으로 제시한 것은, 페미니즘의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한 사회가 내포한 문제점을 은연 중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그린 가모장제 사회는 결코 이상향이 되지 못하리라는 점에서 회화성을 띠게 된다.

소설에서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이론, 가족, 젠더, 첨단 문명과 자연,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 것은, 작품 세계의 폭을 넓히면서 이상 세계를 다양하게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화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주제어 : 페미토피아, 유토피아,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 생태주의, 이상향, 가부장제

I. 서론

소설가 강인수가 5년 동안 준비하여 쓴, <페미토피아>는 미래의 문명 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페미토피아>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가 융기하여 새롭게 형성된 하일랜드(High Land)라는 섬이고, 시간적 배경은 21세기 말엽이다. 작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페미토피아 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한다.¹⁾

1) “...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문명 산업의 발달은 환경을 오염시켜 우리 인간은 자연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태주의를 부르짖게 되었다. 생태주의는 남성보다 여성에 더 친근하다. 이른바 여성의 이상국가 곧 페미토피아(Femiotopia=Feminist + Utopia)의 출현이 가

이 소설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다. 소설에서 공화국을 이끄는 여성 지도자인 역대 총리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에코페미니즘을 광신하거나 존중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작자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말에 세계 최초로 여성 이상 국가가 성립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생태주의 이상향을 그리려 한다.²⁾

소설에서는 여성공화국이 건설되어 그 기본이 완성되는 과정을 ‘프롤로그’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소설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의 생태 문제가 지각 변동을 통하여 해결되고 난 이후의 세계로서 에코페미니즘에 입각한 생태주의 여성 이상국의 모습이 부각된다. 그 과정에서, ‘이상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까지도 담고 있다.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담론은 우리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와 소설에서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금세기 들어서 환경 위기는 인류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에 따른 생태계 보전은 인류에게 부과된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도 근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³⁾ 생태계 위기

능하지 않을까? 한 50년 또는 100년 후쯤의 미래에 페미토피아 공화국이 탄생한다면 그 공화국은 어떤 모습일까?”(강인수, 「작가의 말」, 『페미토피아』, 세종출판사, 2008, 4면. 이하 이 소설의 인용은 해당 면만 밝힘.)

- 2)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등장인물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혹서도 혹한도 없는, 맑은 하늘과 햇살 가득한 태양의 섬, 페미토피아!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상낙원, 여성공화국의 뿌리, 페미토피아!”(227면) “유토피아란, 자유와 평화와 조화와 풍요가 깃든 우리 페미토피아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282쪽)
- 3)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점차 축적되어 가는 추세이다. 예컨대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9. 신덕룡, 『환경 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홍성암, 「환경소설의 양상과 그 지향점」, 『현대 소설의 유형적 특성』, 한국문화사, 2003.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김해옥, 『생태문학론』, 새미, 2005.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의 시대에 대응하는 문학은 기왕의 작품들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고발문학에 끝나지 않고 철학적 깊이로 심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홍성암은 네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첫째 근원적인 세계관 회복 지향, 둘째 자연 파괴의 실상에 따른 고발과 비판, 셋째 인간 자신의 피폐화에 대한 반성, 넷째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페미토피아>도 이러한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더욱이 이 텍스트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기도 하는 페미니즘도 함께 반영하면서 미래 초문명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낙원소설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자와 비평가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을 일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과 동시대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통념도 없지 않겠지만,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아 일단 텍스트로 선정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이 소설에 나타난 이상향의 모습을 탐구해 보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소설이 그리는 미래 사회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작가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이상향이 소설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성도 아울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적절히 원용할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 혹은 생태 페미니즘)은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결합한 이론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철학이요 이념이라 할 수 있다.⁶⁾

4) 홍성암, 위 책, 348-349쪽. 참조.

5) <페미토피아>는 이상 세계를 꿈꾼다는 점에서 낙원소설에 해당한다. 장양수는 낙원·실락원·반낙원 모티프의 소설을 '낙원소설'로 묶은 바 있다. 장양수, 『한국낙원소설연구』, 문예출판사, 1996, 10-11쪽 참조.

6)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전통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다. 에코페미니

II. 이상향을 향한 여성 공화국

이 소설은 여성이 주도하는 이상 국가의 건설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별 인구수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훨씬 많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가부장제 사회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성이 국가와 사회를 주도한다. 가족 제도로서는 가부장 제도가 철폐되고 가모장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되면서

즘은, 아르네 네스의 심층생태학과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학이 각각 표방하는 생물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생태중심주의를 취한다. 심층생태학은, 인간을 생명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이나 자연을 도구적 가치나 효용적 가치로만 인식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이에 비해 사회생태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서 생태 위기가 비롯한다고 보므로 본질적으로 인간중심적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같은 차원에서 보려 하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를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인간을 자연계의 위에도, 아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 곧 균형과 조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비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자연 파괴나 환경오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한다. 에코페미니즘은 나아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 지배, 억압, 착취를 비판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심 영역을 확장한다. 그리하여 에코페미니즘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他者性의 테두리를 크게 넓혀서,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인간 소외, 환경 파괴 등 후기 산업사회의 갖가지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려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 사회, 녹색 낙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9, 347-413쪽 참조. 문학생태학 혹은 생태비평 방법으로 연구한 업적도 다수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구자희는 생태담론과 이론을 탐구하여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페미니즘이라는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소설에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생태소설 연구의 전망을 열었다.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구자희, 『한국현대소설과 에콜로지즘』, 국학자료원, 2009. 참조.

여성이 주로 담당했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남성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페미토피아는 일종의 ‘여성 천국’을 지향하게 되어 ‘여성 해방’이라는 페미니즘의 이상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

1.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

소설에서는 에코페미니즘 철학을 제시한 인물로서 두 사람을 설정한다. 초대 총리 때 정치 고문이 된 프랑스 파리대학 교수 출신인 블랑 박사와, 생태연구가요 스마일시가를 생산한 인물인 강하늘 박사이다.

블랑 박사가 제시한 페미니즘 이론은 세 단계인데, 제1 단계는 ‘반 남성 운동’이고 제2 단계는 ‘지구 민주주의’이며 제3 단계는 에코페미니즘이다.(124-126쪽)

블랑 박사에게 따르면, 남자들은 공격적, 정복적이어서 과거에 식민지 정책을 남자들이 추진했다. 또 초강대국들은 식민주의 근성으로 분리와 차별주의를 시행하여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 왔다. 그러므로 반 남성 운동은 지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길이 된다고 한다.

제2 단계로 박사가 말한 지구 민주주의란 곧 남녀 동등화 운동인데, 남녀가 동등하게 되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존재의 다양성과 상호연관성⁷⁾이다. 다양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사는 어머니인 이 대지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하고, 인간은 인간과 지구를 덮고 있는 생명시스템 간의 상호 공생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7)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다양성과 상호연관성이 생명의 기반이요 행복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자와 남자, 인간과 비인간, 서양과 동양 모두가 상호연관성으로 공존하며 상생하는 것이 지구의 행복한 장래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블랑 박사의 이러한 사상을 사람들은 지구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지구민주주의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과 식물은 형제자매로 자연 속의 생명은 상호 협력과 상호 보살핌과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125-126쪽)

나아가 블랑 박사는 자연이 문명보다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를 편다. 박사의 철학은, 자연이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을 근간으로 하며,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나 정신적으로 강하며 특히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 우월하다. 그러므로 남자를 따라잡으려 할 필요가 없다. 여자는 남자보다 원래 우월하다고 주장한다.(126쪽)

위와 같은 우월론은 생태주의 여성 이상국의 존재 근거가 된다. 문명보다 자연이 우월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뒤이어 생명과학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여자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몇 십 년 후에는 페미토피아와 같은 모계 중심 국가가 여럿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블랑 박사는 이러한 여성주의 관점을 이론의 제3 단계인 에코페미니즘에도 그대로 이어간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전망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여성 이상국가를 세워 이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블랑 박사와 함께 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강하늘 박사는 생태연구가요 에코페미니스트로서, ‘동양적 페미니즘⁸⁾에

8) 동양에는 서구와 달리,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관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일원론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고 보는 생각이 뚜렷하다. 황금뿌리 총리는 블랑 박사와 강하늘 박사의 에코페미니즘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일변으로 동양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사서삼경을 탐독했고 老莊 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노자는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한 ‘聖人’이라 칭송된다. 총리는, 강하늘 박사가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둔 “柔弱勝剛強 弱者道之用(유약승강강 약자도지용) - 유약함이 굳세고 강함을 이기는도다. 약함이 도의 쓰임이로다.”(155쪽)라는 구절을 즐겨 읊조린다(14-15쪽). 『道德經』을 보면 제36장에 “柔弱勝剛強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 不可以示人”, 제40장에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이라는 말이 있다. ‘유약승강강’은 약자가 생존해 나가는 원리라 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는 약한 여성이 강한 남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약자도지용’도 약자를 자연이나 여성으로 보아 페미니즘에 맞게 이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다. 강하늘 박사도 블랑 박사와 사상이 비슷하다.

강하늘 박사는,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한다는 이른바 '상호의존설'을 내세운다. 그리고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5천 년 동안은 모계 사회 곧 가모장 제도였고 그 이후 5천 년은 가부장제였다가 이제 새 세월에는 가모장제 곧 모계 사회 시대'라며 페미토피아가 그 최초의 땅이라 말한다. 나아가 많은 국가들이 페미토피아를 따를 것이라 한다.(156-158쪽)

소설에서 제시한 블랑 박사와 강하늘 박사의 생각은 생태론이나 페미니즘 이론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존재의 다양성과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자연보다 문명이 우월하다는 '문명우월론'과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여성우월론'은, 아르네 네스가 제시한 심층생태론을 비롯하여 전통적 페미니즘 이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서로 연관된다. 여자가 '특히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 우월'하다는 논리는 에코페미니스트 수잔 그리핀이 말한 '돌봄의 윤리'⁹⁾와 통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원래 우월하다는 블랑 박사의 생각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아래 여성공화국을 세움으로써 이상향을 그리려 한다.

1) 여성 중심 국가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사상에 따르면 남성에게 억압받아 온 여성은 가부장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여성의 질서를 세우려 한다.¹⁰⁾ 소설

끝어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9) '돌봄의 윤리'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돌봄, 관계성, 사랑, 책임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 생태 위기를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성에 입각한 돌봄의 윤리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자희, 앞 책, 2004, 85-87쪽 참조.

10) 특히 급진주의 페미니즘(혹은 문화적 페미니즘)에서 그러하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정반대로 역전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도

속의 사회는 대체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 따라 그 질서가 구축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존 사회와 달리 여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소설의 ‘프롤로그’에는 페미토피아 공화국이 건설되는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페미니즘에 입각한 국가가 건설된다는 프롤로그에 따르면 2040년에 이르러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 휴화산인 한라산도 연기를 뿜으며 활동을 시작하여 섬이 융기하게 된다. 주민이 대거 탈출한 후 빈 섬이 되었다가 십 년이 흘러 평온을 되찾을 즈음에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하여 융기한 섬, 하일랜드로 들어간다. 십여 년 뒤에 김고원순(金高元順)이라는 열렬한 페미니스트가 知事가 된다. 김고원순은 드디어 공화국을 건설하고 초대 총리가 된다.

총리는 ‘생명과 더불어 풍요롭고 아름답게’를 공화국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20년간 여성 이상국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네 번이나 연임하여 20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날 즈음 페미토피아의 인구는 100만에 이른다. 그녀의 제자 김박지우(金朴知宇)가 제2대 총리를 맡아 20년을 통치한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김박지우의 총리 후반기에 이르러 페미토피아는 여성 이상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3대 총리 황금뿌리에 이르러서는 하일랜드는 페미토피아라는 이름과 걸맞은 여성이상국을 이룩할 단계가 된다.(12-13쪽)

김고원순 총리는 여자만이 생태계를 완전하게 보존하여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블랑 박사가 만년에 주장한 에코페미니즘 철학을 광신한다. 2대 총리 김박지우는 페미토피아를 더욱 굳건한 여성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3대 총리 황금뿌리도 블랑 박사의 에코페미니즘 철학을 존중하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여성 이상국이 된 페미토피아는 헌법에 여자만이 총리가 될

가부장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성 해방 해방의 한 조건이 된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 관료도 시험으로 선발하되 여자가 80%를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페미토피아 의회는 ‘녹색클럽’과 ‘유토피아클럽’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성되는데 그 정강이 ‘여자 중심의 이상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가 있다면, 녹색클럽은 인간과 자연 간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주의를 강조하는 데 비해, 유토피아클럽은 자유분방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모든 일을 시민의 자율에 맡긴다(44쪽)는 것이다.

2) 남녀의 사회적 역할

초대 김고원순 총리 때부터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즐기치게 진행한 국가 정책은 ‘남자를 부드럽게, 여자를 강하게’ 하여 페미토피아를 영원한 모계 국가로 만드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군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서 남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공화국 초기에 치안과 보안 업무를 여성에게 부과하여 보안요원(경찰) 70%를 여성이 담당하고, 국가를 방위할 방위군도 70%를 여자로 확충했다. 방위군을 양성할 때는, 여자는 의무제로, 남자는 지원제로 하였다. 건강한 여자는 6개월 군사 훈련 뒤에 1년간 전사로 복무를 하게 했다. 여자 전사는 항만과 국가 중요 기관에도, 해안 경비와 항공 방어에도 투입되었다.

남자는 취직도 쉽지 않을 뿐더러, 취직한다 하더라도 대개 임시직이다. 인기 직종은 거의 다 여자가 차지하고, 남자는 대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 간호사, 정원사, 수위, 공원 관리 요원, 관광 안내원, 웨이터는 남자가 대부분이다. 농업과 자영업과 도로 공사에도 남자가 주로 종사한다. 특별 케이스로 우주비행사와 소프트웨어 제작과 잠수부는 우수한 남자들이 담당한다.

이러한 직종 가운데 웨이터는 남자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다. ‘무슈상떼빌’¹¹⁾을 찾는 술손님은 모두 여자이고, 술을 나르는 웨이터나 무대 위

에서 섹스와 관계되는 연기를 하는 쇼맨은 대개 젊은 남자이다. 쇼맨도 웨이터처럼 돈벌이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인기 직업이다.

리오레페는 5천 달러를 들여서 얼굴 조형 병원에서 코를 낮추고 입술을 두툼하게 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무슈상떼빌의 웨이터가 되었다.

페미토피아에는 수창(男娼)도 있다. 스물세 살 청년인 임몽향(우드몽)은 향수 제조 회사에서 調香師로 일하다가, 성형수술 덕분에 네모난 얼굴에 아주 미남이 되었다. 임몽향은 페니스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¹²⁾ 그리고는 호스트클럽 ‘판타지아’에서 수창으로 일한다. 우드몽은 즐거움도 누리고 돈도 벌 수 있다며 아주 좋아한다.¹³⁾

이처럼 페미토피아는 여성 중심 국가, 여성 중심 사회이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덜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보조직, 임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여자보다 훨씬 낮다. 여자가 남자보다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역할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특히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궤를 같이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무비판적 역전의 페미니즘’이라 불릴 만큼 이렇다 할 비판 없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우월하던 남성의 위치를 정반대로 역전시켜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려 한다.¹⁴⁾

11) 무슈상떼빌은 외국 관광객 특히 돈 많은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의 여사장들이 자주 찾는다. 무슈상떼빌이 있는 남해항특별시는 인구가 백 만으로 페미토피아의 정치, 경제, 무역, 문화의 중심 도시이다.

12) 임몽향은 몸매가 예쁘고 피부가 희다. ‘작고 예쁜 네모 얼굴’은 21세기 후반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형이다. 휴먼로봇의 얼굴이 작고 예쁘고 네모로 각이 졌으므로 휴먼로봇과 닮아 보려는 인간 심리 때문에 네모 얼굴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아름다워지려는 남자와 여자들 때문에 유명한 성형병원은 수술 신청자가 초만원이다.(143-144쪽 참조)

13) 판타지아는 정부에서 공인한 환락 클럽이어서 여자로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 출입이 자유롭다. 판타지아에서는 남자들이 늘 피임을 해야 한다.

14) 김옥동, 앞 책, 356쪽.

2. 가족 형태와 여성 해방

1) 가모장 제도, 결혼과 사랑

페미토피아 공화국에서는 가부장 제도 대신에 가모장 제도(모계가장제)를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억압의 근간이라 믿어왔던 가부장 제도는 완전 철폐되고, 오히려 ‘성씨에 따른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는 창씨개명이 이루어진다.¹⁵⁾ 이에 따라 남자는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들게 하여 고대 데릴사위 제도가 부활한다. 이에 반발하여 김박지우 2대 총리 때 상당수 남자가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이나 일본, 중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주의와 함께, 페미니스트에게 흔히 비판을 받는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가부장제의 결과로 본다.¹⁶⁾ 더구나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는 모든 환경 문제의 원인이 남성중심주의에 있으며, 가부장제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 지배, 억압, 착취의 기초가 된다¹⁷⁾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페미토피아에서는 여성 억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가부장 제도를 혁파하고 대신에 가모장 제도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가모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남성 우위의 위계질서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이상 국가를 만들어 페미니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페미토피아에서는 결혼 제도와 그에 따른 관습도 여성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사회를 주도하는 페미토피아에서 결혼은 하나의

15) 그러나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도 보인다. 부모의 성을 합하여 성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경우도 소설 속에 나온다. 낚시마니아인 오션킹(본명 브라운 박)과 서포에서 해양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장여경 여사의 두 자녀는 성이 서로 다르다. 아들은 어머니 성을, 딸은 아버지 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16) 제인 프리드먼 지음, 이박혜경 옮김, 『페미니즘』, 이후, 2002, 24쪽, 94쪽.

17) 김옥동, 앞 책, 396쪽.

선택 사항으로 정착된다. 계약 결혼은 관습으로 굳어진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양혜원(에로디테) 생태연구소 과장은 나이 스물아홉이 되자 평생 독신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공화국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난자나 정자를 정자 은행에 매년 2회 기증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에로디테는 난자를 기증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는 게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생태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스물세 살 청순한 청년인 허부루에게 계약 결혼을 하자고 요청한다.

허부루, 난 자유롭고 싶어. 나중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 같아. 계약결혼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계약이 끝나면 서로가 자유로워지니 얼마나 좋아. 18개월만... 그리고 사랑이란 낭만인 동시에 현실이 아닐까?(54쪽)

계약 결혼이 성립하자 허부루는 ‘여자 집으로 장가드는’ 풍습에 따라 에로디테의 집으로 이사를 한다. 이듬해 아들을 얻은 허부루는 매일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엔 맛있는 요리를 한다.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면 재계약을 요청하는 허부루에게, 에로디테는 중국에서 돈 벌러 온 시양쯔라는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 허부루는 또 시양쯔와 2년간 계약 결혼을 하는데 시양쯔가 딸을 낳음으로써, 허부루는 아이 둘을 즐거이 기르는 ‘싱글대디’가 되었다.

에로디테 같은 고급 관리나, CEO 여자는 자신이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고, 그 남편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고급 관리나 매니저가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낳아 직접 기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여자도 있다.

공화국에서는 결혼 주제를 주로 여자가 맡아서 한다. 김룡(골드미르)

과 유은(유리아)이 사원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할 때 주례를 황금뿌리 총리가 맡는다.

결혼을 하면 첫날밤은 여자가 주도한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최초의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다. 결혼 날짜를 받으면, 신부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것과, 첫날밤에 성교를 할 때 반드시 여성상위 체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화국 보건국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독신 여성은 휴먼로봇과 함께 살기도 한다. 허부루와 헤어진 에로디테는 ‘골드하니’라는 이름을 붙인 휴먼로봇을 주문, 구입하여 섹스 파트너를 삼아 동거한다. 여성 독신자가 이처럼 파트너로봇(로봇 연인)을 구입하면 공화국에서 제작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준다.¹⁸⁾

이 밖에도 모든 여자와 남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육아와 요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피임약을 남자가 복용한다는 것도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페미토피아에서는 가모장 제도를 채택하므로 여자가 가족의 대표자가 된다. 혼인 제도와 관습도 오늘날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계약 결혼이 유행을 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는 남자가 가사에 종사하며, 헤어지면 아이를 남자가 맡아서 기른다. 그래서 여자는 또 다른 사랑을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로봇 연인과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므로 남자 없이도 성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자는 가정 안에서 남자에게 억압 받을 일이 없고, 가사 노동과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¹⁹⁾

18) 휴먼로봇은 사람과 대화할 때 거기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한다. 휴먼로봇은 대화나 섹스 파트너가 되고 댄스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보조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 이러한 여성 우위는, 오늘날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사 역할 분담이 부부간 평등주의 원칙 아래 협조적 공동 참여 형식으로 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선웅, 『개념 중심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006, 239쪽 참조.

이리하여 여자들은 그야말로 성 차별이 철폐되어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 단계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 형태의 특수화

페미토피아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인 핵가족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아이를 기르며 사는 경우도 많다. 후자와 같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를 오늘날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가모장 제도와 여성 중심 사회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인 것이다.

페미토피아에는 아이를 기르는 주체에 따라서 가족 형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 결혼의 결과로 남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싱글대디’, 여자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싱글맘’, 싱글맘이면서 직장을 다니는 ‘슈퍼맘’, 미혼 여성이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미스맘’ 등이 그것이다. 싱글대디는 아이가 보통 두셋이고, 직장에 다니는 슈퍼맘은 대개 아이가 하나다. 싱글인 여전사가 나이 서른에 들면 외로워서 미스맘이 되는 경우가 많다.²⁰⁾

가족은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한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념이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²¹⁾되지만,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지 않고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부모

20) 국가에서는 국가 장래를 위해 강력한 출산 정책과 육아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애들을 기르면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육아비와 임신·분만 수당을 20% 혹은 50%씩 인상하라는 시위가 일어난다.

21) 가족 형태는, 가족원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 가장권과 권위의 소재, 부부의 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또 가족의 구성 관계, 가족의 권력, 가족의 계통 등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기르며 살아가기를 전제로 하는 형태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4, 40-50쪽. 김선웅, 앞 책, 227-233쪽. 참조.

중 어느 한 쪽이 자녀를 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는 오늘날 가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특수한 가족 형태 속에서는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바람직스럽게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²²⁾

공상적인 영화에나 나올 법한 페미토피아의 가족 제도는 여성에게 부여된 재생산 즉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분업에서 여성이 자유로워질 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은 가부장적 사회의 주요 구조들 중 하나이며, 여성을 억압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주장한다. ‘재생산과 어머니 노릇’은 여성에게는 부담이 되고 따라서 제거해야 할 억압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남성에 의해 강화된 억압적 권력 구조를 부수고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을 통하여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²³⁾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주장에 따르면, 성차가 제거되는 사회 즉 출산 능력에서의 차이가 과학의 진보를 통하여 일소되고, 아이를 기르는 기능 곧 어머니 노릇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상향이다. 재생산 자체를 여성에게 부과된 짐 또는 억압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들은 모성을 집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란 이식(대리 임신) 등을 통하여 여성이 재생산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가족 단위도 해체²⁴⁾될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성 해방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도전적인 발상이다.

22) 가족의 기능은 크게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유 기능은 애정과 성, 생식과 양육이고, 기초 기능은 생산과 소비 기능으로서 경제적 기능이며, 부차적 기능은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 등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며 사는 보편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유영주, 위 책, 35-39쪽.

23)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페미니스트가 『성의 변증법』(1979)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제인 프리드먼 지음, 앞 책, 128-131쪽 참조.

24) 위 책, 129쪽.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가족 단위가 해체되면 10명 정도의 성인들이 형성하는 ‘가구’를 통해 한정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이러한 전망은 사실 무리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페미토피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며, 여자가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결혼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하거나, 기증 받은 정자를 이용한 수정관을 대리모에게 임신시킴으로써 세상에 태어난 인물들도 등장한다.

소설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남녀 어느 일방만으로도 자녀만 있다면 가족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념은 성 해방이나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그만큼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에코토피아의 모색

이 소설을 떠받치는 이념은 에코페미니즘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이 만나서 나오게 된 철학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거나 여성 억압과 자연 착취를 같은 차원으로 본다. 또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즘은 물론 가부장 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에 어울리는 이상향, 즉 여성 국가 페미토피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는 이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설에 나타난 생태계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과, '향촌'이라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마을을 대비해 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이상향'을 살펴봄으로써 작자의 의도와 함께, 이상향이 내포한 추상성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태계와 문명의 조화

문명이, 자연과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를 두고 생태문학 또는 환경문학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문학이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생태계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은 오늘날 주요한 의미가 있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비생물적 물질의 총체적인 상호 관계를 의미²⁵⁾한다. 동물과 식물이 서로 의존하며, 동식물은 무생물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페미토피아는 생태주의에 바탕을 두는 공화국으로 설정된다. 페미토피아 헌법에는, 공화국이 추구하는 국가상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생태주의 이상 국가’ 즉 ‘생태공화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생명과 더불어 풍요롭고 아름답게’를 공화국의 지표로 설정하여,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생태주의의 이상 국가 건설에 …신의 선물인 우리 페미토피아는 정의와 자유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시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과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한다.

제1조 페미토피아는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생태공화국이다.

제2조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페미토피아 시민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295쪽)

페미토피아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상낙원’(277쪽)을 지향한다. 서구에서 일어난 심층생태론이나 사회생태론²⁶⁾에서 문

25) 신덕룡, 앞 책, 16-17쪽 참조. 생태계는 빛, 공기, 물, 토양, 등의 무생물적 환경과 동식물을 포함하는 생물적 환경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체계인 것이다.

제 삼았던 이원론적 세계관과,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사라진 미래의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21세기 말엽에는, 정보 통신 기술과 바이오 기술 산업과 환경 기술 산업 등 초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는다.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

21세기 초반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가 중반에 이르자 전 세계 문명국은 유비쿼터스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21세기 후반에 이르러 센서 시대(Sensor Age)로 진입하였다.²⁷⁾

향기가 좋고 인체에 해가 없는 ‘스마일시가(Smile Cigarette)’와 여성의 생리를 연장하여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청춘그라’, 농작물 이외의 잡초와 해충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마메타’ 같은 기호품과 약품도 생산한다. 수소 자동차가 보급되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표준화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손바닥만 하여 먹기에도 좋은 ‘매스푸드’라는 음식이 일반화된다. 호흡기 질환이 이미 사라지고 난치병도 사라져 간다.²⁸⁾

그리고 달나라 관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시간 여행과 미래

26) 생태비평 이론으로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에코페미니즘이 있다. 생태 위기의 원인을, 심층생태론자들은 인간중심주의에서 찾고, 사회생태론자들은 인간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서 찾는다. 생태론의 핵심 요소는 우주 만물이 평등하므로 개체 사이에는 어떠한 계급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권리가 동등하다는 생명평등주의 입장에서, 생태계 전체 구조의 질서,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자희, 앞 책, 2004, 31쪽 참조.

27) 사람들은 손목시계처럼 팔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개인용 인터넷 휴대폰인 ‘모바일’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터넷 또한 고도로 발달하고, 개인 단말기의 정보 콘텐츠와 교신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익명성이 사라진다. 다양한 로봇도 발명되어 인간의 삶을 도와준다.

28) 암이 극복되고, 나노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한 ‘미마 기술’로 정신장애 병인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간질 같은 것도 신경 칩을 두뇌 속에 넣어 치료한다. 또한 만능세포로써 새로운 세포나 장기를 생산하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시간 여행까지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초과학 문명이 펼쳐지는 하일랜드는 천혜의 좋은 자연 조건도 갖추고 있다. 아열대성 기후로 강우량이 연간 2,000mm를 넘고 밝은 태양이 비치고 공기가 신선하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전 국토도 공원화한다.²⁹⁾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가 전혀 없는 이상국은, 오늘날 지구촌이 맞닥뜨리고 있는 생태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곳처럼 보인다. 소설에서 자연 생태계와 과학 문명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삶은 편리하고 풍요롭다. 시민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평균 수명이 남녀가 비슷하게 백 살에 이르도록 산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공화국을 지향하면서 이상적인 초과학 문명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 사회는 바로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페미토피아는 완전한 이상향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여성 우위의 사회라는 점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이상은 실현되었을지 몰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 받던 여성이 반대로 남성을 억압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여성이 남성을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조화로운 ‘생태’ 공화국이 될 수 없다는 역설을 안고 있는 것이다.

2. 전통적인 마을, ‘향촌’

소설에는 고도 문명사회에 건설된 여성 이상 국가와 달리, 농경 사회 이면서 부계 사회를 유지하는 또 다른 이상향으로서 ‘鄉村(Old Country)’이라는 마을이 등장한다. 이 마을은 페미토피아 공화국의 정책 방향과 사뭇 다른 이상향의 모델이다. 향촌은 여성 이상국이 내포하는,

29) 페미토피아는 생태공화국이므로 자연 환경의 보전뿐 아니라 동물 보호에도 철저하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임의로 죽이는 일, 그렇게 하여 만든 제품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예컨대 악어 백이나 사향노루를 죽여 얻은 향기를 가미한 화장품을 쓰면 동물 학대 죄에 걸린다.

여성 우월과 남성 종속이라는 문제점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십수 년 전 골드박 총리가 가모장 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때 많은 남자가 남해도를 떠났지만, 당시에 몇 가족은 이상촌을 이루기 위해서 구름산 산골짜기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형성한 마을이 향촌이다.

한국의 농민 50여 명이 하일랜드로 들어와 구름산 동편 기슭에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은 유씨(柳氏)들의 집성촌으로 마을 이름은 향촌(鄕村)이다. 일명 그 마을을 황토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들 집단이 신세계로 들어온 것은 이상촌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때는 마을이 없어질 뻔도 했지만 황무지를 기름지게 가꾼 공로로 페미토피아 정부도 그 마을을 그대로 존속하게 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210-211쪽)

이렇게 하여 형성된 향촌에는, 들판에 벼가 익어가고, 지대가 높은 곳에 사과나무 과원이 있다. 온통 숲에 싸여 있으며 기와집과 황토 흙벽집도 몇 채 보이는,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 아름다운 정경이며, 향촌 주변에는 벼농사, 과일, 약초, 목축이 잘 된다.

이처럼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이지만, 문명의 혜택도 입고 있다. 사람들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집에 산다. 정부에서 마을을 지원해 주어서 최신 화장실을 갖추어 배설물을 즉시 퇴비로 만든다. 또 지붕에는 태양집열판을 설치했다.

센서 시대에 디지털도 아닌, 아날로그 식으로 살고 있는 향촌을 보면서, 골드미르는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한다. 향촌 마을과 탐라목장을 둘러본 골드미르는 남해항이나 원평 또는 하이테크밸리와 완전히 다른, 태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낀다. 골드미르는,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외계인의 습격 같은 사건으로 센서 시대의 네트워크가 손상될 경우 페미토피아는 원시시

대로 돌아가고 말겠지만, 향촌은 멸절할 것이라는 상상³⁰⁾을 할 정도로, 향촌은 초과학 문명이 발달한 사회와 거리가 있다.

촌장은 115세가 된 노인인데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골드미르에게 말해 준다.

-우리는 녹색 이상촌(ecotopia)을 세우려고, 이 곳에 왔어. 지금은 이 세 삼세들이 살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정착할 즈음, 이 섬에 들어온 여걸들이 정권을 잡았어... 조상을 없애고 성씨를 없애고 모계사회를 법적으로 통과시켰어. (중략)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살아.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함께 할 일도 많아.(215쪽)

이처럼 향촌을 일군 사람들은 조상을 없애고 성씨를 없애는 모계 사회에 반발하면서 ‘녹색 이상촌’ 즉 에코토피아(ecotopia)라는 이상향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

향촌 마을은,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을 유지한다. 제사도 남녀가 함께 지낸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제에 의거한 位階로써 여자를 억압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노인은 시종 미소 띤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들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숭배 이것은 좋은 전통이야. 남자와 여자들이 다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이 곳의 척박한 땅을 우리들은 기름지게 가꾸었고, 지대가 높아 남쪽이지만, 한국과 기후도 크게 다르지 않아... 벼농사나 과수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을 목장이 있어. 소를 백여 마리 기르지. 아주 좋은 곳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

30)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네트워크 시대에 만약 강렬하고 특별한 번개에 의해 또는 외계인의 습격에 의해 센서신경망이라 불리는 초현대화된 슈퍼컴이나 그에 따른 네트워크가 모두 망가질 경우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페미토피아는? 아날로그의 향촌만이 멸절할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도시와 마을은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218쪽)

고 인심이 유순해. 처음 십여 년은 고생을 좀 했지만… 인간은 원래 자연대로 순리대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 우리 사람이란 자연을 존중하는 목동과 같은 거지….(215쪽)

촌장은 이처럼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남자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니 사회를 꾸려 나가고, 여자는 자상하니까 가계를 맡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남자가 아이를 키우며 가사를 돌보는 싱글대디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하여 촌장 노인은, 수컷이 알을 등에 지고 다니는 물자라와 비교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비판(217쪽)한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가 평등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가운데 장수하며 평화롭게 산다. 사람들은 정신질환³¹⁾을 겪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마을에서 학비를 대어 주기 때문에 모두 대학을 다니거나 해외 유학을 한다. 그래서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도 모두 되돌아왔다.

에코토피아란 인간, 자연, 성별, 계급, 나이, 능력, 인종, 민족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는 사회이다. 에코토피아는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회이다. 인간과 자연을 건져 내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착취가 아니라 보존을 추구하고, 합리성보다 직관을, 이성보다 감정을 더 높이 여겨야 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길이라

31) 페미토피아에서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므로 에이즈, 암 같은 난치병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사이코시스(중증 정신분열 환자), 뉴로시스(경증 정신병자) 등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들의 자살 충동 때문에 투신자살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지진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장애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휴먼로봇이 많아지자 리얼레메병(현실망각증), 로봇공포증 같은 병도 생겨난다. 게임 중독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인터넷마니아, 탄생 콤플렉스에 빠진 우울증환자, 마약 복용자, 주정꾼이 많고 노년층에는 대재앙 때 생긴 공포증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도 있다.

보는 것이다.³²⁾

소설에서는 이처럼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타파한 생태주의 여성공화국이라는 이상 사회와, 전통 사회를 바탕으로 하되 남녀가 상호 존중하고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좇는 향촌이라는 목가적 이상향이 동시에 제시된다.

페미토피아와 향촌을 대비할 때 뚜렷하게 대조되는 점은, 페미토피아가 가모장제 사회임에 반해서 향촌은 조상과 혈통을 중시하는 부계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향촌은 여성 우위에 반대하고 남녀의 생리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역할 분담을 ‘순리’라 하여 강조한다. 향촌 마을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과학 문명과 전통적 가치관이 모순 없이 공존하는 곳이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촌 사회는,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분법적 사고와 여성 우위 위계질서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을, 에코페미니즘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개념인 ‘비판적 에코페미니즘’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에코페미니즘의 관심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벨 프롬우드와 캐린 워런이 제기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제3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데, 무비판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에 참여하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신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무조건 찬양하려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모두 비판한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타파와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을 비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지배,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기존 페미니즘이 여성중심주의로써 남성에 대한 새로운 지배 논

32) 김옥동, 앞 책, 412쪽 참조. 김해옥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주체와 타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에코토피아의 세계라 했다. 김해옥, 『생태문학론』, 새미, 2005, 181쪽.

리를 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는, 남성을 타도 대상으로 보았던 전통적 페미니스트와 달리 남성을 동반자로 본다.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그동안 남성이 여성을 차별해 왔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에코페미니스트는, 노예가 주인을 모시듯이 남성을 섬기지도 않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³³⁾ 이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동반자로 보아 차별을 지양하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회는 곧 에코토피아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사회가 되면 기존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여성이 당하던 억압은 소멸한다. 그러나 여성에 의한 또 다른 억압이 제기된다. 페미토피아라는 생태주의 여성공화국이 여성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남성을 억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태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생태를 파괴하는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비판했던 생태 위기, 즉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 남녀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새로운 이분법적 사고와 여성 우위의 위계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는 여성 우위 위계질서가 야기할 억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바와 같은 살기 좋은 사회의 모델로서 향촌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태계와 첨단 문명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여성 중심 사회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공화국이 이상 국가가 되는 데 장애가 되는 본질적 문제는 바로

33) 구자희는 에코페미니즘(생태 페미니즘) 및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을, 그 기원과 개요, 다양한 논의와 내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구자희, 앞 책, 2004, 90-98쪽 참조.

여성 우월과 남성 억압이다. 남성 인구를 소수가 되도록 억제하고 여성 우월을 추구하는 정책은 자연 질서를 따르는 조화로운 삶과 어긋난다. 전통적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지나친 여성주의, 즉 ‘여성 우월’이나 ‘여성의 남성 지배’는 불평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겉으로 여성 이상국을 찬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희화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소설은 첨단 테크놀로지와 생태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성과, 가족과 젠더 문제, 종교 등 많은 요소를 포용하면서 이상적인 미래 세계를 그렸다는 점과, 자연 파괴, 환경 위기라는 현대가 안고 있는 문명적 결함을 바탕에 깔고 생태주의적 상상력으로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한 점에서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 즉 여성 중심, 여성 우위 관념이 구현되는 사회를 희화화하고, 향촌이라는 에코토피아를 제시하여 비판하려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아직 진정한 이상향이라 할 만한 세계를 그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 제시한 향촌이라는 존재는 물리적으로 볼 때 공화국에서 일개 궁벽한 마을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 여성 공화국의 아웃사이드로서 아주 작은 실험적인 별천지 또는 대안 마을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깔고 있지만, 여성 공화국과 향촌의 장단점을 지양하고 종합하여 이상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결론

이 소설은 21세기 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잡고 아름다운 섬을 공간으로 설정하여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를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놀라

운 상상력으로 그려 낸 의미심장한 유토피아 소설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작자는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결합된 에코페미니즘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문명국가로서 여성 이상국을 상상했지만,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억압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이상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설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존속하면서도 남녀의 위계가 성립되지 않아 억압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적 마을을 설정하였다. 鄉村이라는 마을에서는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또한 남녀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가부장 제도가 유지되는 이 마을은, 혈통을 중시하고 조상을 받드는 전통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 중심 사회가 내포한 문제점을 은연 중 부각시키고 새로운 이상향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은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혹은 어떤 권력 구조에 의해 상처 입고 훼손된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이상국에서 드러났듯이 진정한 이상향은 단순히 페미니즘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조상을 숭배하고, 남녀가 조화하며, 문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비판적 페미니즘에 어울리는 사회를 이룰 때 비로소 이상 세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이론, 가족, 젠더, 첨단 문명과 자연,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소를 포괄하면서 미래 세계를 그리려 한 점에서 상당한 스케일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공화국을 묘사하면서도, 비록 작은 마을이기는 하지만 향촌을 제시하여 대비시킨 것도 페미니즘에 바탕을 둔 이상 세계의 허구성을 제기하고, 이상향의 비전을 새롭게 암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다양한 요소를 수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 『페미토피아FEMITOPIA』, 세종출판사, 2008.
- 곽경숙,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적 상상력」, 『현대문학이론연구』 1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61-85쪽.
-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 생태·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 새길, 1995.
- 구자희, 『한국현대소설과 에콜로지즘』, 국학자료원, 2008.
- 김경탁 역, 『노자』, 현암사, 1997.
- 김봉균, 「한국 문학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국문예비평연구』 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249-260쪽.
- 김선용, 『개념 중심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006.
- 김옥동, 「문학생태학의 개념과 성격: 생태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년도 자유공모과제 연구 결과,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1-34쪽.
-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원중, 「생태문학과 동양사상: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인가?」, 『미국학논집』 36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4, 54-82쪽.
- 김재희 엮음, 『깨어나는 여신 - 에코페미니즘과 생태문명의 비전』, 정신세계사, 2000.
- 김종희, 「생명사랑, 인간사랑의 문학을 위하여 - 생태환경소설의 현 수준과 과제」, 『한국문화연구』 18,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1998, 155-165쪽.
- 김해옥, 『생태문학론』, 새미, 2005.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즘』, 창작과비평사, 2000.
- 머레이 북친 지음, 문순홍 옮김, 『사회 생태론의 철학』, 솔출판사, 1997.

- 박성용,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불교의 생태평화화』, 다산 글방, 2007.
- 박영신, 「다시 생각하는 여성주의, 새로 생각하는 생태주의」, 『사회이론』 33,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7-33쪽.
- 박은정, 「생명과학기술과 인간」, 『인간연구』 6,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2004, 46-71쪽.
-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지성사, 1980.
- 박주식,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생태학적 문학이론의 정립을 위해」, 『미국학논집』 33권 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1, 211-245쪽.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송지현, 「문학비평으로서의 생태여성론(Ecofeminism)」,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999, 97-115쪽.
- 신덕룡, 『환경 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 신덕룡, 「우리 문학에 나타난 생태의식 - 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 『인문학연구』 7,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3, 31-46쪽.
- 신지은 외, 『세계적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일송북, 2007.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43권 1호, 새한 영어영문학, 2001, 39-51쪽.
- 이재연 외, 『훤히 보이는 지능형 로봇』, 전자신문사, 2008.
- 이종성, 「선진도가의 자연관을 통해 본 현대문명의 비판적 대안」, 『철학논총』 22, 새한철학회, 2000, 65-89쪽.
- 이혜원, 『생명의 거미줄 - 현대시와 에코페미니즘』, 소명출판, 2007.
- 장양수, 『한국낙원소설연구』, 문예출판사, 1996.
- 전미정, 『한국 현대시로 본 에코토피아의 몸』, 한국문학도서관, 2005.
- 정경민, 「생태문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397-414쪽.

- 최경구, 「21세기 패러다임으로서의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여성논총』 5, 경기대 여학생문화원 여성학연구실, 2002, 141-159쪽.
- 최문형,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해월 최시형의 여성관」, 『동학연구』 8, 한국동학학회, 2001, 113-145쪽.
-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와 생명사상』, 국학자료원, 1998.
- 홍성암, 『현대 소설의 유형적 특성』, 한국문화사, 2003.
- 황선애, 「생태여성주의와 문학」, 『독일언어문학』 27, 한국독일언어학회, 2005, 223-243쪽.
- K. K. 루트반 지음, 김경수 옮김,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문학과비평사, 1989.

<Abstract>

Utopia Pursued in Novel *Femitopia*

Lee, Sang-Won

This novel can be appreciated as the significant utopia novel describing the highly developed cultural society with remarkable imagination from a view of eco-feminism by establishing the time setting of late in the 21th century and spatial background of beautiful island.

The world of novel is the eco-feminism, macroscopically the utopia that ecologism and feminism were combined, in other words, it tries to create the utopia with a purpose to solve two problems of each women and nature by balance and harmony. As a result, the utopia for woman as the civilized nation harmonized with nature ecosystem was established, but women rather repressed men in the community under matriarchal system leaded by women. Thus, as an alternative, though patriarch system was remained, the hierarchy of men and women was not organized, so the ideal village in which residents live happily and harmoniously without suppression was suggested.

While the writer aims at the ecologism nation where the nature ecosystem and the future culture were harmonized, on the other hand, he imagine the new utopia in which nature, culture, human, men and women can survive together by establishing the 鄉村(Old Country). A new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value of keeping a lineage and respecting ancestors functions to reveal the problem of a matriarchal

society in the novel.

This novel may be consequently referred to as the novel to explore the alternative utopia with highlighting the several problems after the ecofeminism was establish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women and nature ecosystem were damaged and impaired by patriarchal system, capitalism or a certain power structure.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true utopia can not be accomplished simply by establishing the feminism. And also he shows the prospect that such a world can not be established until the harmonies of human and nature, men and women are accomplished all together while preserving the patriarchy and respecting ancestors.

Key Words : utopia, ecotopia, eco-feminism, feminism, ecologism,
patriarchy

■ 논문접수 : 2010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